

김수영 시의 문학사교육적 설계 — 1960년대 시를 중심으로

박가희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 과정

- I. 서론
- II. 김수영 시의 문학사적 가치
- III. 김수영 시의 문학사교육 활용 방안
- IV. 결론

I. 서론

문학사교육의 목표는 전체 속에서 개별을 이해하고, 개별과 개별의 관련성 속에서 작품에 대한 감상을 풍부하게 하는 데에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전체 문학 작품의 윤곽 속에서, 그리고 작품이 쓰인 당대 현실과의 관련 속에서 작품에 관한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문학사교육 수업의 실체는 횡적(橫的), 종적(縱的)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전자는 동시대의 여러 작품과의 차별되는 특징을 바탕으로 해당 작품이 어떤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에 관한 공시(共時)적 통찰이다. 후자는 해당 갈래의 계보가 이어지는 통시(通時)적 흐름 속에서 작품이 어떤 작품의 영향으로 탄생하였으며 후대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역사적 통찰이다.

문학사교육이 연표 중심의 지식 이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문학사교육의 방향에 관한 여러 연구가 비판적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였다(김정우, 2006: 399-430; 박윤우, 2019: 85-102; 조하연, 2013: 511-542). 그러나 학술적 논의에 비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기반한 교실에서 실행되는 문학사교육의 변화 폭은 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교과서에서 선정

된 작품의 상호텍스트적 의미를 풍부하게 실현하는 것과는 큰 연관 없이 그 자체만 탈맥락화하여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2015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의 단원 구성 현황을 파악하고 교과서 구성의 한계를 지적한 연구가 있으나 구체적인 대안까지는 제시하지 못하였다(김정우, 2021: 121-148).

문학 갈래 중 시는 현실 속에 놓인 주체의 치열한 고민과 사유를 섬세한 언어로 형상화한 갈래이다. 그렇기에 시 교육은 학습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예민한 시선과 언어적 감수성을 키워준다. 그리고 우리 현대사(史)에서 당대 현실에 대한 예민한 시선과 이를 실험적인 언어 형식으로 드러낸 시인으로는 김수영을 꼽을 수 있다. 김수영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4·19혁명과 5·16쿠데타 등 격동의 근현대사를 몸으로 경험한 시인이다.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던 모순적 시대 속에서 근대 문명의 부조리를 포착하고 이를 고발하는 작품을 통해 시가 가진 현실 변혁의 힘을 역설하였다. 또한 문학과 현실 간의 관련성에 관한 생각의 차이로 빚어진 1960년대 ‘순수-참여’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하였다(김은송, 2011: 45-67; 백지은, 2009: 253-287). 이 때문에 김수영의 시는 광복 이후를 대표하는 문학으로 교과서에 수록되고 있다. 2015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 10종 중 8종의 교과서에 김수영 작품이 수록되었는데 이들 중 6종의 출판사에서 문학사 단원에 작품을 배치하였다.¹⁾

1) 2015 개정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에 김수영 시가 수록된 출판사와 단원명은 아래 표와 같다.

작품명	출판사	단원명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신사고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지학사	한국 문학의 흐름
	천재(김)	한국 문학의 흐름
	금성(류)	한국 문학이 걸어온 길
눈	미래엔(방)	문학의 갈래와 흐름
풀	해냄	한국 문학이 걸어온 길을 따라서

2022 교육과정 『문학』교과서 7종 중에는 4종의 교과서에 김수영 작품을 수록하였고 이들 중 문학사 단원에 작품을 배치한 출판사는 3종이다.²⁾ 이처럼 김수영의 여러 작품이 다양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에 관한 학습 활동들은 단순히 작품 안에 있는 시대와 역사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만 주목하고 있을 뿐, 김수영 시가 가진 문학사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김수영은 시의 내용에 시대에 대한 정확한 대응과 역사적 현실에서 생성된 사유를 담아낸다. 그리고 시어 열거 및 반복의 형식을 통해 시어 의미 만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시인의 내면과 심리적 작용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현대시사에 새로운 전범이 되었다. 이처럼 시의 내용과 형식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김수영 시의 균형 감각은 서정 갈래의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김수영은 여러 산문에서 현대시가 지향해야 하는 역사·사회적 기능과 예술로서의 시의 본질에 관한 생각을 밝힌다. 또한 자신이 속한 현실적 문제

꽃잎 1	동아	한국 문학의 이해
공자의 생활난	천재(김)	문학의 수용과 생산
사랑	창비	문학의 본질

- 2) 본고를 작성하는 시점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가 정식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이에 해당 출판사 사이트에 게시된 디지털 자료를 기본 자료로 사용하였다(강정환·김민혁·김지운·민태홍·안병만·이석중 외, 2025: 249-256; 김수학·송지언·우완·윤대석·정지민·정호웅, 2025: 132; 김정우·김지혜·남궁민·류수열·박수현·박현선 외, 2025: 180-185; 김향연·김민혁·서유경·신장우·윤정환·이경호 외, 2025: 248-251). 2022 『문학』 교과서에 김수영 시가 수록된 출판사와 단원명은 아래 표와 같다.

작품	교과서	단원명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지학사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푸른 하늘은	동아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천재	한국 문학의 성격
폭포	해냄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의 답을 전통에서 찾으려 했던 김수영의 시에는 고전 시가 형식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렇기에 김수영의 시 학습을 통해 전체와 개별, 개별과 개별 간의 관계 속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문학사교육의 목표에 닿을 수 있다. 이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김수영 시론을 통해 1960년대 현실과 문단의 상황 속에서 김수영이 지향하는 현대시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김수영 시가 문학사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김수영 시의 문학사적 가치

김수영은 현실에서 생성된 반응과 감정을 시적 언어로 형상화한다. 근대 문명의 부조리함 속에서 생성되는 시인의 사유를 시의 내용으로, 그리고 변화하는 새로운 현실을 형상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의 형식의 생성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현대시사적 위상을 가진다. 이번 장에서는 김수영의 산문을 통해 시의 내용이 되는 시적 사유와 시의 형식이 되는 시작(詩作)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문학과 현실과의 관계－시의 내용

4·19 혁명과 연이어 발생한 5·16 쿠데타는 1960년대 한국 문학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전후(戰後) 문학의 ‘개인적 실존의 문제와 고뇌’라는 주된 관심이 ‘민족 현실에 대한 고민’으로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실과의 관계에서 문학의 본질과 기능을 재검토해보려는 문학관의 정립이 문제가 되었다. 이 시기의 여러 참여 논의들은 현실의 변화와 사회의 모습을 미적 논의의 범주 안으로 들여오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이념과 현실 그

리고 사회문제에서 벗어난 문학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던 기존의 순수문학과 대립하며 ‘순수-참여’ 논쟁이 시작되었다.

김수영은 문학을 통한 현실 참여의 의미를 자각한 시인이었으며, 60년대 ‘순수-참여’ 논쟁에서 참여문학론의 중심에 있었다. 아래에 제시된 글은 시와 현실과의 관계에 관한 김수영의 생각이 담겨 있다.

나는 우리의 현실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은 이 뒤떨어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시인의 태도이다. (중략) 우리의 현대시가 우리의 현실이 뒤떨어진 것만큼 뒤떨어지는 것은 시인의 책임이 아니지만, 뒤떨어진 현실에서 뒤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시를 위조해 내놓는 것은 시인의 책임이다.

「모더니티의 문제(1964)」(김수영, 2018년: 351)

소설을 쓰는 마음으로 시를 쓰고 있다. (중략) ‘내용’은 언제나 밖에다 대고 ‘너무나 많은 자유가 없다’는 말을 계속해서 지껓여야 한다. (중략) 헛소리다! 헛소리다! 헛소리다! 하고 외우다 보니 헛소리가 참말이 될 때의 경이. 그것이 나무아미타불의 기적이고 시의 기적이다. 이런 기적이 한 편의 시를 이루고, 그러한 시의 축적이 진정한 민족의 역사의 기점(起點)이 된다.

「시여, 침을 뱉어라」(김수영, 2018년: 500)

첫 번째 인용문에서 김수영은 미성숙한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直視)하는 것부터 시작(詩作)의 사유가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뒤떨어진 현실’이란 전통과 밀려 들어오는 근대 문명이 얹혀진 부조리한 당대 현실을 의미한다. 시를 통해 당대 현실을 정직하게 포착해내는 것이 시인의 책임이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소설’을 쓰는 마음으로 ‘시’를 쓰는 것은 억압적인 현장과 투쟁하며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시에 담는다는 뜻이다. 김수영이

놓인 당대 현실은 세계사적으로는 냉전의 논리로, 국내는 군부 독재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시기였다. 이에 김수영은 ‘스테이트먼트를 할 수 없다는’ 현실에 관해 ‘스테이트먼트라도 해야 한다.’라며(김수영, 2018 ㄴ: 588-589) 시를 통해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삭제되고 검열당하고 있음을 외쳐야 한다고 역설한다. 시를 통해 자유가 없음을 끊임없이 외치다 보면, ‘헛소리가 참말이 되는 순간’, 헛소리처럼 느껴지던 시의 내용이 사람들의 무의식에까지 미쳐 그것이 ‘참말’로 여겨지는 ‘경이’가 발생하고 역사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현실을 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 이러한 주장은 예술성과 현실성을 분리하며 고상하고 지순한 정서를 시에 담아냈던 전통 서정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억압적 현장과 부딪치며 생성되는 개인의 사유와 정서를 작품 안에 담아내는 것이다. 아래의 시는 당대 현실의 규율과 통제가 일상생활 속 사소한 대화까지 감시를 작동시키는 사태와 이에 무의식마저 공포에 잠식되어 가는 시인의 내면을 담고 있다.

모두 별안간에 가만히 있었다

씹었던 불고기를 문 채로 가만히 있었다

아니 그것은 불고기가 아니라 돌이었을지도 모른다

신은 곧잘 이런 장난을 잘한다

(그리 흥겨운 밤의 일도 아니었는데)

사실은 일본에 가는 친구의 잔치에서

이토츄[伊藤忠] 상사(商事)의 신문 광고 이야기가 나오고

곳쿄노 마찌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북으로 갔다는 나가타 겐지로 이야기가 나왔다

아니 김영길이가

이북으로 갔다는 김영길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들어간 때이다

내가 나가토[長門]라는 여가수도 같이 갔느냐고
농으로 물어보려는데
누가 벌써 재빨리 말꼬리를 돌렸다……
신은 곧잘 이런 꾸지람을 잘한다

「나가타 겐지로(1960)」(김수영, 2018 7: 221)

일본에 가는 친구를 위해 모인 술자리에서 화자를 포함한 친구들은 ‘이
토츠히[伊藤忠] 상사(商事)’, ‘곳쿄노 마찌’ 등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
‘곳쿄노 마찌’에 관한 대화는 ‘나가타 겐지로’로 이어진다. ‘나가타 겐지로’는
‘김영길’로 재일 교포 테너이다. 그는 애국 가요를 부르며 천황을 찬양하였는
데,³⁾ 돌연 1960년에 북송하였다.⁴⁾ ‘곳쿄노 마찌’는 나가타 겐지로가 녹음한
노래 제목이다. 북으로 간 가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친구들은 모두 입을
다문다. 순식간에 그 술자리에는 정적이 흐른다. 비록 농담일지라도 북한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금지하던 이데올로기적 명령이 사람들의 무의식까지 포섭
한 상황을 보여준다.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화자는 나가타 겐지로와 듀엣으
로 활동한 여가수인 ‘나가토[長門]’도 같이 갔느냐고 농으로 물어본다. 그러
나 이마저도 친구들은 재빨리 화제를 돌린다. 혁명이 일어났음에도 사소한
농담조차 삼시간에 공포의 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념적인 금기가 남아있
는 현실과 이미 자동화된 자기 검열이 작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시대의 씀

-
- 3) 1935년에는 〈일본행진곡〉 등을 비롯하여 〈아아 애국이 끓는다〉, 〈소년 전차병의 노래〉, 〈우
리는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천황의 백성인 우리들〉, 1945년에는 〈카미가제 노래〉 등
을 불러 명성을 크게 얻었다(김응교, 2021).
- 4) 정치범명단에 이름이 보이는 김영길은 후지와라 오페라단에서 나가타 겐지로라는 일본이
름으로 활동했던 테너가수로 지난 60년 나가타에서 북송선을 타고 입북했다는 것이다(공
동연합, 1994: 23).

쓸함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김수영은 시에 당대 현실의 상황과 이에 종속된 내면을 담아내며 현실에 저항한다. 김수영의 예민한 현실 감각은「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1965)」,「의자가 많아서 걸린다(1968)」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문학과 언어의 관계 - 시의 형식

현실에 대한 예민한 반응과 그에 대한 사유를 시의 내용으로 도입하려는 김수영의 노력은 새로운 시 형식의 생성으로 연결된다. 외부 현실과 고투하며 끊임없이 현실의 자유를 찾아가는 내용은 기존의 관습적인 시 언어로는 표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수영은 현실의 문제를 시의 내용으로 펼칠 수 있는 시 내용의 자유와 그 내용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시 언어를 찾고자 하였다. 아래의 글은 내용에 맞는 새로운 시 형식의 출현에 관한 설명이다.

‘내용의 면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말은 사실은 ‘내용’이 하는 말이 아니라 ‘형식’이 하는 혼잣말이다. 이 말은 밖에 대고 해서는 아니 될 말이다. ‘내용’은 언제나 밖에다 대고 ‘너무나 많은 자유가 없다’는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너무나 많은 자유가 있다’는 ‘형식’을 정복할 수 있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간신히 성립된다.

「시여, 침을 뱉어라(1968)」(김수영, 2018ㄴ: 500)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진술하는 것은 시가 될 수 없다. 산문적인 이야기는 시적인 언어로 매개되었을 때 비로소 시 작품이 된다. 자유를 지향하는 의지적 사유가 그에 맞는 시 형식을 요구하고, 때로는 새로운 시 형식이 내면의 사유와 현실의 행위를 드러낼 수 있을 때 현실의 자유가 오게 된다. 현실의 자유를 지향하는 내용이 형식을 통해 표현되고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드러낼 수 있다는 뜻이다. 시적 주체의 사유와 감정을 드러나게 하는 시작

(詩作) 방법에 관해 김수영은 아래와 같이 진술한다.

나는 그것(인용자 : 현실을 이기는 시인의 방법)이 언어의 서술에서만 아니라
(시작품 속에 숨어 있는) 언어의 작용에서도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생활 현실과 시(1964)」(김수영, 2018ㄴ: 351-352)

‘언어의 서술’은 시어의 의미를 활용하여 당대 현실을 내용으로 전개하는 방법으로 시의 내용적 측면에 관한 설명이다. ‘언어의 작용’은 시어 및 시구의 배열과 같은 시의 형식이 시인의 의식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시어가 형성한 시구는 단위를 이루고, 단위가 반복되며 형성되는 시의 구조적 형태는 현실에 반응하는 시적 주체의 심리적 작용과 변화를 표현한다. 하나의 작품에서 시적 주체 내면 의식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을 형식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다. 아래에 제시된 시에서 연쇄되는 시어는 화자의 의식이 축적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참음은 어제를 생각하게 하고
어제의 얼음을 생각하게 하고
새로 확장된 서울특별시 동남단 논두렁에
어는 막막한 얼음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로 전근을 한 국민학교 선생을 생각하게 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주막거리에서 쉬는 10분 동안의
지루한 정차를 생각하게 하고
그 주막거리의 이름이 말죽거리라는 것까지도
무료하게 생각하게 하고

「참음은(1963)」 일부 (김수영, 2018ㄴ: 297)

‘생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생각하

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가 반복되며 화자의 끊임없는 정신적 사투를 보여준다. ‘참음’이 ‘어제’를 떠오르게 하는 것은 울분을 참아내며 어제를 떠올리는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투명하고 미끄러워 주체를 넘어뜨리게 하는 ‘얼음’을 똑바로 응시하게 한다. 이는 ‘확장된 서울특별시’, 즉 도시에서 ‘논두렁’까지 연결되는 얼음에 대한 연상으로 이어진다. 화자는 도시를 떠올리며 막막함과 차가움을 느낀다. 막막한 도시는 그곳으로 일터를 옮긴 ‘국민학교 선생’의 고단함을 떠오르게 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주막거리’에서 느끼는 ‘지루함’, 그리고 지루함 속에서 ‘말죽거리’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무료함’을 상기한다.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시어의 연결은 끝없이 여러 생각을 하며 버터내는 과정이 바로 ‘참음’임을 드러낸다. 이처럼 시구의 나열과 반복은 화자의 의식이 움직이는 과정을 표현한다.

또한 김수영은 비속어, 악담, 비(非)시적 언어 등을 열거한다. 부드럽거나 고상한 시어 대신 비시적 언어를 시에 도입하는 것은 시인이 몸담은 현실의 내용을 제한 없이 시로 들여올 때 필요한 표현 전략이다. 아래 제시된 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비속 여사와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진보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네에미 씹이다 통일도 중립도 개좃이다
 은밀도 심오도 학구도 체면도 인습도 치안국
 으로 가라 동양척식회사, 일본영사관, 대한민국 관리
 아이스크림은 미국놈 좃대강이나 빨아라 그러나
 요강, 망건, 장죽, 종묘상, 장전, 구리개 약방, 신전,
 피혁점, 곰보, 애꾸, 애 못 낳는 여자, 무식쟁이,
 이 모든 무수한 반동이 좋다

「거대한 뿌리(1964)」 일부 (김수영, 2018 7: 298-300)

‘거대한 뿌리’라는 제목은 우리의 근원이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

통에 있음을 의미한다. 화자는 당시에 신성하게 여겨졌던 권력의 상징물들을 비천하게, 반대로 천한 취급을 받고 있었던 사물이나 사람을 신성하게 표현한다. 중요한 것은 이를 시의 형식으로 가져오는 방법이다. 개념어와 비속어를 수다스럽게 떠드는 이 시는 기존의 고상함을 추구하던 서정시의 면모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연쇄적 열거는 부조리한 현실에서 억눌린 사유가 폭발적으로 터지는 순간을 표현한다. 현실에서 대응하는 사유의 작용을 시 형식을 통해 드러내는 표현 전략이다.

이처럼 김수영은 우리 현실에 대한 정직한 인식을 시의 내용에 과감하게 도입하였으며, 이를 시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시 형식을 생성한다. 다음 장에서는 김수영이 시도한 시작 방법이 문학사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III. 김수영 시의 문학사교육 활용 방안

문학사교육은 학습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 당대의 작품들과 어떠한 차별점을 가지는지에 관한 공시적(共時的) 위상과 그 작품이 선행한 작품의 어떤 점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있는지에 관한 통시적(通時的) 위상을 고려하며 구성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두 가지 층위로 구성될 수 있는 문학사교육에 김수영 시 작품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논하고자 한다.

1. 공시(共時)적 접근-시 내용과 현실의 관련성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학』 과목에서 문학사교육과 관련하여 ‘[12문학01-04] 한국 문학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라는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22: 137). 2015 문학과 교육과정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이 성취기준을 통해 문학사교육의 주된 목표는 문학에 반영된 당대의 시대 상황과 문학과 역사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15: 128).

현행 교과서인 2015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와 2022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의 문학사 단원에는 김수영의 시가 광복 이후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 특이할 점은 전자의 경우 문학사 단원에 김수영의 시를 수록한 6종의 교과서 중 4종의 교과서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를 수록되었으나, 후자의 경우 문학사 단원에 김수영 시를 수록한 3종의 교과서에 각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폭포」, 「푸른 하늘을」이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새롭게 교과서가 편찬되며 문학사교육을 위해 수록된 작품의 종류가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품에 관한 학습활동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새롭게 편찬된 교과서 모두 억압적인 시대 상황과 그 속에서 자유를 지향하는 화자의 모습에만 주목하고 있다.⁵⁾ 이러한

5)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를 본문으로 수록한 2015 『문학』 교과서는 지학사, 금성, 천재(김)이다. 지학사는 본질적 문제에 대항하지 못하는 화자의 소시민성을 통해 학습자의 삶을 성찰하게 한다(남궁민·신현암·엄태웅·이승철·정재찬·조형주, 2019: 222-224). 금성은 최승자의 「울 여름의 인생 공부」와 함께 읽기를 제시하여 현대시가 가진 자유 지향의 양상과 의미를 경험하게 한다(권혁원·김미영·류수열·소래섭·양기식·유성갑 외, 2019: 216-219). 이 활동은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두 작품을 연결하여 새로운 맥락을 형성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유 지향’으로만 현대시의 속성을 설명하기엔 다소 모호한 활동이 될 수 있다. 천재(김동환·김에스터·김정우·김태석·박진호·조희정 외, 2019: 233-238)는 신동엽의 「껌데기는 가라」와 비교하며 두 작품에서 화자의 현실 대응 방식의 차이점을 다루는 활동을 제시한다. 이는 김수영의 자기 반성적 목소리와 신동엽의 명령적 목소리를 대립적으로 비교하여 동일한 시대를 대하는 다른 태도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문학사 교육의 특성을 잘 반영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김수영과 신동엽을 비교하는 활동은 2022 『문학』 교과서에서도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2022 『문학』 교과서 중 지학사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를 비교하게 하며(김정우 외, 2025), 두산동아는 「푸른 하늘을」의 의미를 탐구하는데 함께 읽어볼 작품으로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를 소개한다(김향연 외, 2025). 해냄에듀는 「폭포」를 신동엽의 「껌데기는 가라」와 비교하는 활동을 제시한다(강정한 외, 2025). 이들은 모두 상호 텍스트 읽기 활동을 통해 당대 현실을 반영한 문학의 의의를 학습하게 한다는

학습활동은 두 가지 한계점이 있다. 하나는 같은 시대에 비슷한 시대 인식을 가진 다른 갈래를 넘나드는 활동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갈래별 전개에 집중한 단원 구성에 의한 것이며 차시별 학습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대에 쓰인 서로 다른 갈래들의 연관에 관한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다양한 문학사적 맥락 형성을 어렵게 한다. 또 하나는 다른 경향, 즉 당대 참여시에 대응하였던 순수 서정시 작품과의 비교가 없어 학습자들이 광복 이후 시기에는 현실을 반영한 문학만 있을 것이란 오해를 하게 한다.

김수영 시는 앞서 논의한 대로 현실과의 고투를 담고 있다. 그렇기에 자아와 세계의 갈등을 담은 갈래인 비슷한 시기의 소설과 함께 읽기를 진행하여 시의 화자와 소설 속 주인공의 현실 대응 방식을 논의해볼 수 있다. 교과서에 이미 제시된 시 이외에도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며 당시 사회현실과 그에 대응하는 시인의 의식을 담은 작품인 「의자가 많아서 걸린다」를 수록할 수 있다.

의자가 많아서 걸린다 테이블도 많으면
 걸린다 테이블 밑에 가로질러놓은
 엮음대가 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은
 미제 자기(磁器) 스탠드가 울린다

마루에 가도 마찬가지로 피아노 옆에 놓은
 찬장이 울린다 유리문이 울리고 그 속에
 넣어둔 노리다케 반상 세트와 글라스가
 울린다 이따금씩 강 건너의 대표소리가

(중략)

의의가 있으나 한편으론 해당 시기엔 김수영과 신동엽으로 대표되는 현실 참여적인 문인의 작품만 있을 것이란 고착화된 반응을 낳게 할 수 있다.

닿고 닿아지고 걸리고 걸려지고
모서리뿐인 형식뿐인 격식뿐인
관청을 우리집은 닮아가고 있다
철조망을 우리집은 닮아가고 있다

「의자가 많아서 걸린다(1968)」부분(김수영, 2018 ㄱ: 385-387)

바닥에 앉고 눕는 생활을 하는 전통적 생활 공간에 서구의 물건이 채워지자 화자는 심리적 위압감을 느낀다. 작품이 발표된 1965년은 미국의 압력으로 맺은 한일협약에 대해 김수영을 포함한 재경 문인들이 ‘한일조약의 즉각 파기와 국회 비준 거부’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한 해이다.⁶⁾ 작품 속 ‘미제 자기 스탠드’, 그리고 ‘노리다케 반상 세트’는 미국과 일본을 상징하며 ‘대포 소리’와 ‘철조망’은 냉전으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을 표현한다. 당시 사회에 불안과 갈등을 유발한 나라의 물건이 부르주아적 쾌락을 가져다주는 물건으로 용인되어 집 안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이 속에서 화자는 자신도 모르게 쾌락 속에 젖어 들고 있을지도 모르는 내면의 불안감을 고백한다. 이렇듯 화자의 일상생활과 내면은 사회현실과 한꺼번에 작동되고 있음을 담아낸다. 또한 4행씩 맞춰 전개되는 모든 연은 사각형 모서리를 연상시키며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사각형의 방 안에서 빙빙 돌며 답답함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위의 시와 함께 전광용의 「꺼삐딴 리(1962)」를 함께 읽을 것을 제안한

6) 1962년 7월 미 국무부는 일본의 경제 원조를 받아들이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의 원조를 다시 고려하겠다는 압박의 메시지를 한국에 전달하였다. 이후 8월 23일에는 케네디 대통령이 박정희에게 한일회담 개최를 요구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12일에 한국 정부는 한반도 침탈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원하는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굴욕스러운 내용의 합의를 진행하였다. 이는 과거 청산이라는 우리 민족의 과제를 외면하고 일본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었다(고봉준, 2020).

다.⁷⁾ 시적 화자의 태도와 소설의 인물인 ‘이민국’을 통해 학습자는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물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동시대의 사람들은 그 둘을 어떻게 평가했을지를 생각하며 오늘날 현실에 대응하는 삶의 태도를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갈래를 넘나드는 활동은 기존 갈래별 구성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시도이다. 이외에도 최인훈의 「광장」, 윤홍길의 「장마」 등을 교과서 학습 활동으로 제시할 수 있다.

갈래를 넘나드는 활동과 더불어 동시대에 존재하였던 다른 경향의 작품을 비교해 보는 활동도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순수-참여’ 논쟁의 참여파 시인으로 김수영이 있다면, 이에 대응하는 시인으로는 순수 서정시의 명맥을 유지하였던 김춘수⁸⁾가 있다. 김춘수는 김수영과 동시대에 활동하며, 사물에 대한 관찰력과 사물을 이미지로 엮어내는 언어 감각을 통해 시의 본질과 시어(詩語)에 관한 치열한 실험을 시도한 시인이다. 아래의 시는 이러한 김춘수의 시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꽃이여, 네가 입김으로
대낮에 불을 밝히면
환히 열리는 가장자리,
빛깔이며 향기며
화분이며…… 나비며 나비며

7) 「꺼삐딴 리」에는 ‘이민국’이라는 기회주의적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일제 강점기에 친일을 하고 광복이 되자 소련군에게 빌붙어 위기를 모면한다. 1·4 후퇴 때 월남한 이후로는 미 국민의 도움으로 사회 지도층이 되는, 변절을 일삼는 인물이다.

8) 김춘수(金春洙, 1922년~2004년)는 1946년에 「애가」라는 작품으로 등단하였고, 김수영은 1949년 「공자의 생활난」으로 등단하였다. 김춘수는 “내 본래 의식은 역사허무주의였습니다. 역사나 현실의 문제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었지요. 그때 김수영의 「풀」같은 작품을 보면서 내가 써보고 싶었던 것을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종의 라이벌 의식, 질투가 생긴 거지요. 나보다 선수를 쳤구나 하는 생각 그래서 의식적으로 더 내면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김춘수, 2004: 13-14).

축제의 날은 그러나
먼 추억으로서만 온다

나의 추억 위에는 꽃이여,
네가 머금은 이슬의 한 방울이
떨어진다

너의 미소는 마침내
갈 수 없는 하늘에
별이 되어 박힌다

「꽃의 소묘(1959)」 부분 (김춘수, 1983 ㄱ: 150-152)

위의 시에서 김춘수는 꽃이 입김으로 불을 밝힐 때 열리는 세계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빗갈, 향기, 화분, 나비가 탄생한 세계는 축제의 날이다. 축제란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즐기는 일이다. 이 축제는 현실에서 부재한 것으로 의식에만 있다. 이러한 지향에 대해 김춘수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나에게 있어 詩作은 生活로부터의 逃避가 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말하면, 詩作은 生活로부터의 해방이 된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하면 非專門家的 處身을 할 때 詩作은 生의 救援이 된다는 뜻이다(김춘수, 1983 ㄴ: 358).

김춘수의 시론을 염두에 둔다면 시의 ‘꽃’은 현실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존재이며, 시인의 의식이 생활의 긴장으로부터 해방되는 즐거움이 시가 된다. 이처럼 김춘수는 생활에서 벗어난 시작(詩作)을 설명하며 김수영과 전혀 다른 시 세계를 형성한다. 동시대에 활동하였으나 시의 기능에 관한 사유와 시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른 두 시인의 작품을 비교하며 학습자는 당대 문인들의 논쟁을 알 수 있다. 시, 나아가 문학의 취향을 형성할 수

있으며 스스로 문학의 본질과 기능 및 지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동시대에 등장한 다른 갈래, 다른 경향의 시 작품을 함께 학습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 방향으로 진도를 나가는 선조적(線條的) 구성 대신 문학사적 맥락을 다양하게 구축하게 하며 새로운 연관을 형성하는 구상을 시도하는 것이다.

2. 통시(通時)적 접근-시 형식의 전통 계승과 재창조

시대적 현실과 그에 대응하며 생성되는 의식과 정서가 어떠한 시 언어로 표현되었는가를 살피는 것과 내용과 긴밀한 연관을 맺는 작품의 형식이 어떻게 계승되고 재창조되는지를 살피는 것은 시사(詩史) 교육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당대 변화하는 현실과 이에 따른 의식의 움직임이 시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고 설명한 김수영의 시론은 현대시사(史) 교육에 맞닿아 있다.

김수영은 억압적 현실로 인해 눌러있던 사유가 폭발하여 분출하는 순간을 시어의 열거를 통한 급박한 호흡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열거법은 조선 후기 평민 문학인 판소리와 사설 시조, 그리고 김수영 보다 앞선 시대의 시인인 1930년대의 백석 시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김수영 시에서 열거되는 시어들은 유사한 의미가 있는 여러 시어를 단순히 나열한 사설 시조 및 백석 시와는 달리 연쇄되는 사유를 드러낸다. 아래에 제시된 세 작품을 들어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움을 창조해가는 서정 문학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가)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저귀 수돌저귀 비복겉새 크나

큰 장도리로 똥짝 바가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있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흐 노라

(나)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짚검불도 가
 랑있도 머리카락도 형겅 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깃도 개 터럭도
 타는 모닥불
 재당도 초시도 문장(門長)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땀쟁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상하니
 도 몽둥발이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모닥불(1936)」 부분(백석, 2011: 206)

(다) 오오 환희여 미역국이여 미역국에 뜬 기름이여 구슬픈 조상이여
 가뭄의 백성이여 되게든 정다산이든 수염 난 영감이든
 복덕방 사기꾼도 도적놈 지주라도 좋으니 제발 순조로워라
 차침 예술과 시인들이 아무리 우리의 능변을 욕해도-이것이
 환희인 걸 어떻게 하라

「미역국(1965)」 4연 (김수영, 2018 ㄱ: 318-319)

(가)는 조선 후기 평민들의 사설시조이다. 고달픈 삶과 근심으로 생기는
 답답한 마음에 창이라도 내서 답답함을 풀고 싶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물을 수다스럽게 열거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
 고 있다. 삶의 비애와 고통을 웃음으로 풀어나가려는 민중들의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나)는 1936년에 발표한 백석의 시이다. 일상적인 시어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형태는 모닥불 안으로 질료들이 첨가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모닥불
 이 타오르는 장면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세상에 버려진 하찮고 쓸
 모없는 모든 존재가 한꺼번에 타오르며 세상을 밝힌다는 의미가 형성된다.
 화자의 시선은 모닥불을 쪼는 존재들로 옮겨간다. 식자(識字)와 상인, 노인과

아이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존재가 열거된다. 모닥불 앞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불을 쪼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화자는 모닥불을 보며 고향으로 자란 할아버지 모습과 할아버지로 대표되는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떠올린다.

(다)는 1965년에 발표한 김수영의 시이다. 시어들이 열거되며 리듬감을 형성한다. ‘오오’라는 감탄으로 시작되는 네 번째 연은 억눌린 시인의 의식에 깨달음이 오는 순간의 환희를 드러낸다. ‘미역국’에서 시작되는 시어의 나열은 의미상 인접성을 가진 시어들로 연결되며,⁹⁾ 사유의 연쇄적 흐름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비슷한 시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열된 이전 시들과의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다. ‘미역국’은 미역국에 뜬 ‘기름’을 떠오르게 하며 이는 기름진 것을 누리지 못했던 ‘구슬픈 조상’과 ‘가뭄의 백성’을 연상하게 한다. ‘조상’과 ‘백성’은 우리 아픈 역사를 소환한다. ‘퇴계’는 역사의 인물이자 민본(民本)을 통치 이념으로 가진 유학자이다. 역사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민중에 대한 기억은 유학자인 ‘퇴계’를 떠오르게 하고, 이는 애민(愛民)을 실천한 실학자 ‘정다산’으로 연결된다. ‘수염 난 영감’으로 통칭하는 역사의 인물인 ‘퇴계’와 ‘다산’은 시대를 건너 근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복덕방 사기꾼’으로, 봉건 사회를 상징하는 ‘도적놈 지주’로 이어진다. 이렇게 열거되는 존재들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생일날이면 탄생의 순간을 축하하며 누구나 먹는 미역국 앞에서 평등해진다. 미역국을 통해 보여주는 생명의 존귀함은 유학과 실학의 공존,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는 공존과 연대를 나타낸다. 또한 시인은 역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같이 섞여 끊어지는 것이 우리의 역사이며, 이는 ‘예술과 시인들’이 지향하는 고귀한 세상과 다름을 인식한다. 고귀한 것과 비천한 것이 섞이는 것이

9) 하나의 화제가 대체될 수 있는 유사한 화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은유이며, 하나의 화제가 인접한 다른 화제로 이어지는 경우를 환유이다(Roman, 1989). 김수영 시에서는 인접한 의미의 시어들이 열거되며 사유의 흐름을 보여주므로 환유적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현실이자 우리의 역사임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의식이 탄생한다. 미역국은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축복하는 ‘환희’의 표상이다.

천재 교과서 『문학(2019)』에서는 현대시가 전통 운문을 계승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전 시대의 시가 어떤 점이 계승되고, 한편 어떤 지점에서 새롭게 시도되었는지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활동은 미흡하다.¹⁰⁾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작품의 공통된 형식적 특징을 밝히는 활동은 서정 갈래의 작품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배치하며, 연속성의 관점에서 현대시가 ‘전통의 계승과 재창조’ 속에 있음을 알게 할 수 있다. 통시적 흐름을 바탕으로 한 이 활동은 대단원 정리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산문적 문체를 활용한 김수영 시를 활용하여 일상적 시어와 산문의 말투가 조선 시대 양반 시조의 반(反) 장르인 평민 시조에서 1930년대의 백석 시로, 1960년대의 김수영 시로 연결되며 시 형식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¹¹⁾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시대를 거치며 어떻게 새로운 시도로 발전되었는지에 관한 활동 역시 수행해볼 수 있다. 나아가 조선 후기 평민의 삶, 일제 강점기의 우리 민족의 현실, 그리고 전통과 문명이 뒤섞인 부조리한 현실과 그에 대한 시인들의 반응이 시 형식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아하고

10) 천재 교과서 『문학(2019)』에서는 “현대시는 한편으로는 전통을 계승하고 한편으로는 창조를 모색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며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개별 소단원에 제시된 현대시 「모닥불(백석)」, 「농무(신경림)」가 ‘고전 시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을 계승하고 있는지에 관한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김정우, 2021: 129).

11) 2022 개정 문학 교과서 7종 중 유일하게 갈래별로 문학사 단원을 구성한 교과서인 ‘지학사’ 출판사에서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의 학습활동에 “그(김수영)의 해사체는 현대 시사에서 주목되는 문체이다.”라고 설명한 김준오(2008: 415)의 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당대의 시들과 비교했을 때 김수영 시 문체가 갖는 독특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단지 비속어나 일상 언어를 시어로 사용하는 시어 선택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을 뿐 시 내용과 형식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제시문이 아니며, 또한 서정 갈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김수영 시 문체가 갖는 통시적 의의 역시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숭고한 시어로 이상적인 세계를 노래한 양반 및 예술과 시인과 달리 힘겨운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민중과 서민의 현실과 삶에 관심을 둔 시인들의 의식과 이를 표현해내는 형식 간의 관계 역시 고찰할 수 있는 시도이다.

IV. 결론

본고는 현행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의 문학사교육 단원에 제시된 작품이 전체 속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탈맥락화되어 수용되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전체와 개별, 개별과 개별 속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문학사교육의 공시적, 통시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 범위를 현대 시로 한정하여 그중에서도 ‘순수-참여’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김수영 시의 문학사교육적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그의 시가 문학사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Ⅱ 장에서는 시의 내용으로는 현실과 그 속에서 생성되는 시인의 사유를 담아내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시 형식을 생성하려는 김수영의 시론을 설명하였다. 시론에 관한 직접적 진술인 산문에서 그는 고귀한 세계를 아름다운 언어로 형상화한 전통 서정시와 서구 모더니즘을 관념적으로 적용한 당대 모더니즘 시들을 비판하며 김수영은 일상적이고 비(非)시적인 언어를 통해 현실에서 생성되는 사유를 시에 담았음을 밝히고 있었다.

Ⅲ 장에서는 Ⅱ 장을 바탕으로 문학사교육에서 김수영 시가 활용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작품에 대한 공시적 접근으로써 현실과 고투하는 개인의 사유를 담은 김수영의 시는 비슷한 시기에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소설과 함께 읽힐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당대 상황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현재 자기 상황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지닐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또한 시에 현실을 반영하는 참여시와 시와 현실을 분리하는 순수 서정시와 비교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문학적 취향을 생각하고, 동시에 문학의 본질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를 통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시 형식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김수영은 일상어나 욕설, 야유 등의 고상하지 않은 언어를 수다스럽게 나열하여 현실적 억압으로 눌린 사유가 터지는 순간을 표현한다. 이는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외로움과 서러움의 감정을 시에 담아낸 백석, 조선 후기의 삶의 애환을 담은 평민의 판소리나 사설 시조의 형식과 유사하다. 또한 김수영의 시는 나열되는 시어를 통해 사유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전 시 형식을 계승하면서도 새롭게 창조된 지점을 알게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고전 시가와 현대시가 별개의 것이 아니며 사유나 감정을 시적 언어로 표현하는 서정 갈래로서의 연속적인 연관성을 지어보려는 시도였다.

본고에서는 문학사 흐름을 횡적, 종적으로 살피기 위해 김수영 시론과 시를 활용했을 뿐, 김수영 시가 문학사교육의 전범이 된다는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생성된 모든 문학 작품은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풍부하게 감상되고 이해될 수 있다. 본고의 시도를 바탕으로 다른 작가의 작품 역시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였을 때 더욱 의미 있는 문학사교육의 실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본 논문은 2024.10.30. 투고되었으며, 2024.11.14. 심사가 시작되어 2024.12.12.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정환·김민혁·김지운·민태홍·안병만·이석중·이성균·정의창·정이든·조정래·태혜정 (2025), 고등학교 『문학』 해냄에듀, 해냄에듀 2022 개정 교과서, 검색일자 2024.10.2., 사이트주소 <https://preview.hnedu.co.kr/viewer/preview/customLayout.jsp?contentId=JTJGcHjvZHVjdDUlMkZpbm5vcml4JTJGMjAyNDA4MjkxMTE0MDgwMS5wZGY=>.
- 고봉준(2020), 「1960년대 정신사와 신생(新生)의 토포스(topos): 4·19 혁명과 한일회담 반대 운동 전후 신동엽 시의 변화양상」, 『한국문학논총』 84, 449-481.
- 공동연합(1994.8.5.), 북송(北宋) 교포 32명 수용, 북(北) 승호마을 조총련 전(前) 간부가 확인, 『경향신문』, 32.
-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5])』,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2),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 5])』, 세종: 교육부.
- 권혁원·김미영·류수열·소래섭·양기식·유성갑·이용숙·이지선(2019), 『고등학교 문학』, 서울: 금성교과서.
- 김동환·김에스터·김정우·김태석·박진호·조희정·주영민(2019), 『고등학교 문학』, 서울: 천재교과서.
- 김수영(2018ㄱ), 이영준(편), 『김수영 전집 1-시』, 서울: 민음사.
- 김수영(2018ㄴ), 이영준(편), 『김수영 전집 2-산문』, 서울: 민음사.
- 김수학·송지연·우완·윤대석·정지민·정호웅(2025), 고등학교 『문학』 천재 교육·천재교과서, T셀과 중고등 2022 교과서 전시관, 검색일자 2024.10.2., 사이트 주소 https://view.chunjae.co.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X9WBgQd-cIu_XOowqhbpM-klqrVzTq6lYFFklpxAu9Y;isExternal=eQ;printUse=;enableDapSide=;pageView=.
- 김은송(2011), 「1960년대 순수참여 논쟁에 대한 고찰」, 『한글말글학』 28, 45-67.
- 김용교(2021), 『김수영, 시로 쓴 자서전』, 서울: 삼인.
- 김정우(2006), 「학습자 중심의 문학사교육 연구」, 『국어국문학』 142, 399-430.
- 김정우(2021), 「한국현대시문학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 -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문학사 단원 분석을 중심으로 -」, 『우리말 글』 90, 121-148.
- 김정우·김지혜·남궁민·류수열·박수현·박현선·정재찬·조형주(2025), 고등학교 『문학』, 지학사 2022 개정교과서, 검색일자 2024.10.2., 사이트 주소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tsol.jihak.co.kr/tsol/22tp/h/lit/JIHAKSA_%EB%AC%B8%ED%95%99_%EA%B3%A0_%EA%B5%90%EA%B3%BC%EC%84%9C.pdf.
- 김준오(2008), 「순수·참여와 다극화 시대」, 김영정(편), 『한국현대문학사』, 서울: 현대문학.
- 김춘수(1983ㄱ), 『김춘수 전집 1-시』, 서울: 문장.
- 김춘수(1983ㄴ), 『김춘수 전집 2-시론』, 서울: 문장.

- 김춘수(2004), 「의미와 무의미의 변증법을 찾아서」, 이재훈(편), 『나는 시인이다』, 서울: 팬덤박스.
- 김향연·김민혁·서유경·신장우·윤정환·이경호·이재찬·이지훈·최지현(2025), 『고등학교 『문학』 동아 출판, 두클래스 중고등 2022 교육과정 고등 교과서, 검색일자 2024.10.2., 사이트 주소 <http://ebook.dongapublishing.com/ebook/ecatalog5.asp?Dir=2334>.
- 남궁민·신현암·엄태웅·이승철·정재찬·조형주(2019), 『고등학교 문학』, 서울: 지학사.
- 박윤우(2019), 「한국현대시문학사 이해를 통한 한국문화교육의 전망과 과제 - 한·중 간 한국현대시 텍스트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말 글』 80, 85-102.
- 백석(2011), 고희진(편), 『백석 시집 정본』, 파주: 문학동네.
- 백지은(2009), 「1960년대 문학적 언어관의 지형 - 순수/참여 논쟁의 결과에 드러난 1960년대적 '문학성'의 양상」, 『국제어문』 46, 253-287.
- 조하연(2013), 「문학사적 안목 형성을 위한 문학사교육의 내용 개선 방향 연구」, 『새국어교육』 97, 511-542.
- Roman, J. (1989), 『문학 속의 언어학』, 신문수(역), 서울: 문학과지성사(원서출판 1987).

김수영 시의 문학사교육적 설계

— 1960년대 시를 중심으로

박가희

문학사교육은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는 공시적(共時的) 측면과 해당 갈래의 계보가 전승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학습하는 통시적(通時的)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김수영은 시대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실험적 언어 형식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리 현대시사(史)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의 상황을 시의 내용에 담아낸 그의 시작(詩作) 태도는 예술과 현실을 분리하여 지순한 감정을 전달하였던 당대 전통 서정시인과는 구분된다. 나아가 시 형식을 통해 현실에 대응하며 작동하는 내면의 의식을 드러내고자 한 시작(詩作) 방법에서는 선행하는 작품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김수영 시의 내용적, 형식적 특징은 두 측면으로 구성될 수 있는 문학사 교육 목표에 부합한다.

이 연구는 김수영 시가 가진 문학사적 가치를 시의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밝힌다. 또한 공시적, 통시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문학사교육에 김수영 시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핵심어 문학교육, 문학사교육, 공시성, 통시성, 김수영, 내용, 형식

Design of a Literary History Education Course based on Kim Soo-young's Poetry

— Focusing on Poetry from the 1960s

Park Gahee

Literary historical education can be conducted synchronically by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situation reflected in works of literature and diachronically by learning the process of transmission and development of preceding works from the same genre.

Kim Soo-young holds a special position in modern poetry history in that he expressed his sensitive response to the times in an experimental poetic form. His attitude toward writing poetry, which includes his contemporary situation, is distinct from that of traditional lyric poets of the time, who conveyed pure emotions by separating art and reality. Furthermore, in the form of poetry that attempts to reveal the inner consciousness that operates in response to reality,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similarity to preceding works. The content and formal characteristics of Kim Soo-young's poetry fit the goals of literary history education which can be divided into two aspects.

This study reveals the literary historical value of Kim Soo-young's poetry in terms of its content and form. In addition, it proposes a method for utilizing Kim Soo-young's poetry in literary history education that can be structured both synchronically and diachronically.

KEYWORDS Literature Education, Literature History Education, Synchrony, Diachrony, Kim Soo-young, Content, Form